

# 2006학년도 간디청소년(중·고 통합형)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 정원: 1학급 22명 내외(남녀공학)

2. 모집 지역: 전국

## 3. 지원자격

가.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비인가 초등학교 졸업가능)

나. 법으로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전형일정

가. 학교 방문의 날(신입생 전형 설명회)

1) 1차 설명회: 2005년 4월 2일(토) 14:00 2) 2차 설명회: 2005년 4월 30일(토) 14:00

나. 1차 전형(서류전형)

1) 원서교부 및 접수: 2005년 5월 2일(월) - 5월 27일(금)

2) 우편접수는 5월 27일(금) 본교 도착분에 한하고 팩스나 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① 본교에서 정한 입학원서 1부 ② 본교에서 정한 학부모 소개서

③ 본교에서 정한 학부모 설문지 ④ 본교에서 정한 학생 설문지(자필로 적기)

⑤ 본교에서 정한 추천서 1부(담임 또는 학생을 가까이서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

⑥ 전형료: 10,000 원(우편접수 시에는 우편환으로 동봉해 주십시오)

※ 위의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 미비자의 경우 접수에서 제외하오니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6월 2일(목) 10:00 - 학교 홈페이지 개시

다. 2차 전형(면접)

1) 일시: 2005년 6월 4일(토) - 5(일) 2) 장소: 본교 3)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6월 6일(월)

라. 3차 전형(추천)

1) 일시: 2005년 6월 11일(토) 2) 장소: 본교 강당 2) 3차 전형 합격자 발표: 당일 발표

마. 학생 예비학교

1) 일시: 2005년 7월 18(월) - 20일(수) (2박3일) (단, 숙시비, 학습활동비 별도 부담)

바. 합격자 등록

1) 합격자 등록: 2005년 8월 19일(금)까지

## 5. 특기사항

가. 본교는 중고 통합 과정의 학교이며,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 비인가 학교로서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390-852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3

♣ 전화 : 043-653-5791-2 ♣ 전송 : 043-653-5798

♣ 홈페이지 : www.gandhischool.org

'사랑' 과 '자발성' 의 간디청소년학교

# 간디IN

예비1호



간디청소년학교  
<http://gandhischool.org>

## 간디학교는요!

간디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즉 오늘날의 학교가 가진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워진, “기존 교육의 대안이 되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기존교육의 문제점이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강제와 억압, 주입식 장시간의 수업, 너무나도 많은 과목, 폭력문제, 도덕적 수준의 저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의 도외시, 성적에 의한 인간 평가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 인생” “패배인생”으로 만드는 현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이 주신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간디학교는 부적응아 중심의 학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탁월성과 봉사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의 지성을 골고루 발달시켜 자아를 완성하고(자아실현)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곳입니다.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식수업이 행해지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교과들, 가치관 교육, 자립능력을 길러주는 노작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학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 21세기의 지도자들에게 적합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04	열어가는 글	시작하는 이들에게   양희창
06	주제가 있는 이야기	시작, 늘 새롭고 아찔한...   허영실
08	내가 바라보는 간디	간디학교 속의 폭력?!
09	간디IN이 만난 사람	간디학교의 젊은이 바티스트
10	주제가 있는 이야기	봄길을 걷다   장희숙
11		간디학교에서의 첫 발걸음   강들
12	동아리 한마당	우리가 만들어요! 고운사분
14	기숙사 엿보기	이쁜이들의 일상다반사
16	교과 이야기	환경호르몬을 고발한다
18	독서비평	삶이 뭐가 막힌듯이 답답하고...   이용애
20	간디청소년학교이야기	
21	대안교육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22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3	CMS 후원회원	

# 시작하는 이들에게

양희창 \_ 간디청소년학교장

“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첫 날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마음을 다잡는 아이들에게 ‘시작’이라는 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설렘이기도 하면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자기암사이기도 하지요. 마치 언 땅이 녹아 제 자리를 잡아가듯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자신의 색깔로 자리매김을 하겠지요.

교사들이라고 ‘시작’에 대한 긴장감이 없을 리 있겠어요?

‘시작’은 항상 ‘변화’를 전제로 하니깐요. 새로운 교과 과정을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압박감이 부루퉁한 얼굴을 만들기도 하고 변화에 대한 자기 변신을 꾀하다가 건강에 무리가 오기도 하지요. 그래도 ‘시작’이라는 긴장감은 또 다른 삶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상만 반복된다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어느 노릇 말처럼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이루어지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이가 머지않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겠지요.

마치고 보면 우리들은 매일 자신의 남은 첫 날

을 시작하며 살아가지요. 어떻게 그 날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는 늘 새롭고 대단한 날이 되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방학 때 거창하게 계획표를 만들어 ‘방학 시작’을 선포하는 것을 극구 말립니다.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뿐더러 계획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제멋대로 생활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작’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냥 매일 매일 그 날 해야 할 목표만 정하는 거지요. 조금 더 된다면 일주일 정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놓고 그것만은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뜻은 깊고 멀리 정하되 ‘매일 매일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도 많은 헛걸음 끝에 뒤늦게 깨달은 것 아닐까요?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혜’와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는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기호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 기분에 설탕을 듬뿍 넣은 이상한 찌개가 나올 것이니까요.

지혜가 없이는 잘못된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지요.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돌려 댈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감마저 잃어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도 '사랑' 이 없으면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아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거나 한다면 맛있는 찌개가 나오겠어

요?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도 사랑과 정성이 담기지 않은 음식은 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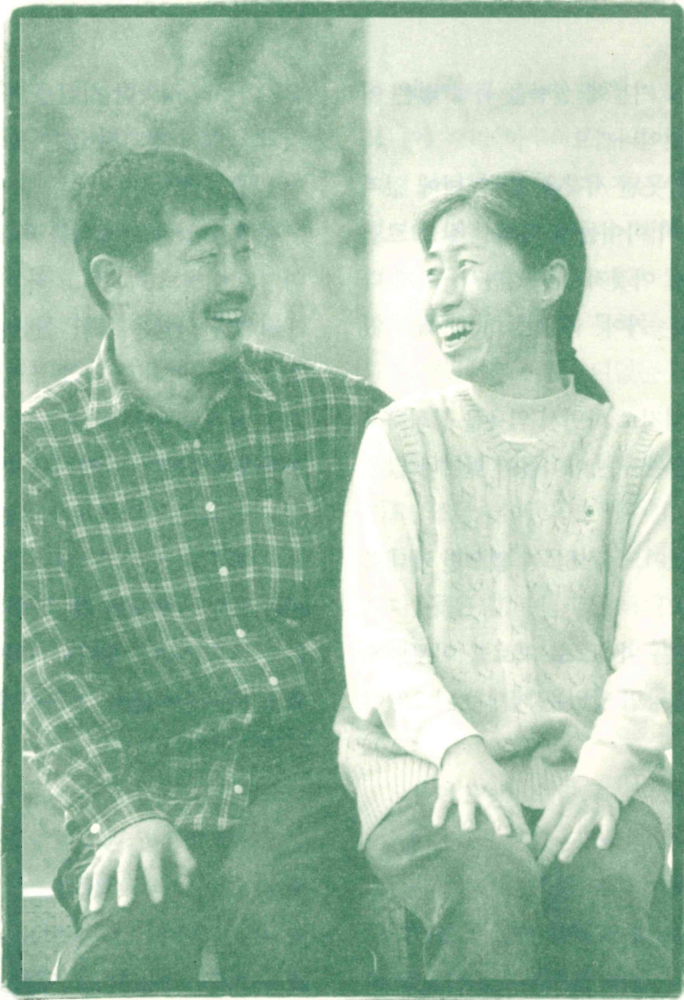
찌푸린 얼굴로 요리를 하고 있는 저를 본다면 아마 아이들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와 사랑은 또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직접 장 보러 가야하고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야 하고 직접 요리를 위한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가락만 들고 다닌다면 과연 옳은 김치찌개가 나올까요?

'지혜', '사랑', '헌신' 이 세 가지는 시작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알고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 랍니다. 참다운 사랑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땀 흘리는 이들의 행복이니까요.

# 시작, 늘 새롭고 아찔한...

허영실 \_ 허영실(1학년 장노운 어머니)



걱정과 궁금이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가 이기면 제자리에 그냥 있게 되고, 궁금이가 이기면 뭔가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게 된다.

졸업장 안 나오는 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을 걱정하는 것은 부정의 힘이고,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은 긍정의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TV에서도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오지 않는가?

나는 올해 마흔 세살인데, 만일 칠십 세살이 된다면 팔십 세살을 향한 새로운 준비를 할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소복소복 나이를 먹어가겠지만 나이라는 녀석에게 자유를 좀 줄 것이다.

나는 어떤 존경하는 필리핀 수녀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존경해도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왜냐? 영어 말이 안 나와서... 통역하는 분이 밥 먹으러 가면 얼굴만 보고 있어야 된다.

그 분에게 내가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여쭙보고 대답을 들으려면

나는 당장 말하기와 듣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또 나는 잘못 형성된 나의 성격을 교정하기 위해 ‘성격’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손으로 만드는 일에 평생 자신이 없으니 옷이건 그릇이건 악세사리건 아니면

수화라도 꼭 하나는 해보고 싶기에 정말 마음이 바쁘다!

그런데 더 이상 시작할 거리가 없거나 시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는 아마 기절한 사람일 거다.

내가 팔십 세살이 되어도 든든하다면 무엇을 할까?

그 때는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는 마무리를 시작해야겠지.

어떤 모습으로 떠나가면 좋을지 미리 연습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감동적인 한마디를 남겨서 잊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또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두고...

왜냐하면 ‘조동진’이라는 가수의 노래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그 순간은 또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모두 가는 길로 줄지어 가다가 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집을 하나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돈이 없다면?

늘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느 날 학교를 맡겨놓고 소풍을 가신다면?

우리 모두 이 좋은 봄날에,

참된 시작을 알리는 온갖 모양의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큭.큭.큭.

## 간디학교 속의 폭력?!

이산하 \_ 일상다반사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항상 만나는 비폭력 서약서.  
비폭력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간디의 비폭력·불복종 정신에 따라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간디인들의 약속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처럼 간디학교 속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강제성으로 상처를 받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요즈음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일진회의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에 비하면 이게 폭력일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폭력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신체적 폭력 이외에 언어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강제적 명령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까지도 폭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디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중 '저 아이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싫어하고, '내 생각이 옳은 거야' 하는 생각으로 개인의 큰 목소리를 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속어를 내뱉고, 서로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이 모든 것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는 폭력인 것이다. 이런 폭력은 간디학교 내에 일상화 되어버린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가족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안전 중 폭력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 경중에 차이를 뒤야할 폭력에 당사자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며 작은 벌로써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육체적인 힘이 드는 강제성의 벌로써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의 최소한의 언어 예절에 있어서까지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는 폭력이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 가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해 알아가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이란 그 자체로 나와 서로를 상처 입히고 간디학교 모든 이들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폭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폭력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공공연한 폭력들에 무뎌져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 간디학교의 젊은이, 바티스트

이웅애 \_ 일상다반사 정현

일명 독일에서 왔다고 Germany(젊은이)라고 불리우는 '바티스트'는 한국의 간디학교가 흥미롭게 들러 워크캠프를 통해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재미 있고 장난기 많은 간디학교의 젊은이, 그가 우리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시다.



:: 간디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적이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가족회의 때 교사와 학생이 동등하게 한 표씩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아이들의 인상은 어때요?

활동적이고 재미있고 친근하나 가끔씩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어깨를 툭 치고도 아무 말 없이 가며 실내화를 말도 없이 교사나 학생들이 신고 있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합니다.(서양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신의 영어수업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대체적으로 수업분위기는 활발한 편이나 아이들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일부 아이들은 조용하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김치요! 맵고 톡 쏘는 신맛이 좋습니다.

::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영화 중에서도 액션영화. '올드 보이' 같은 호러 무비를 좋아합니다.

:: 한국어는 어때요?

일본어와 비슷한데(바티스트는 독일에서 일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약간 더 어렵습니다. 문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한국문화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습니까?

외향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건물이 많이 있는 것과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건물이 미관상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녀가 결혼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나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 한국의 도시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서울과 춘천을 가보았습니다. 제 인상으로는 도시 중심과 외곽의 빈부차이가 심해보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 공부를 마친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이상형을 물었더니 부끄러워하며 말을 하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인터뷰 중간 중간에 한국어도 가르쳐주며 재미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 봄길을 걷다

장희숙 \_ 선생님

봄별이 좋다.

유난히 겨울이 긴 덕산, 겨울의 끝자락 추위에 웅크리고 지내는 간디 사람들에게 봄가운은 반갑고 따스한 손님이요. 책상 위에 쌓인 공책 검사는 잠시 미루어 두기로 하고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들으며 교문을 나선다. 논두렁을 따라 봄 햇살 아래 혼자 걷는다.

새 학기에 첫 담임, 잔뜩 쌓인 업무에 보태어져 새내기들이 저지르는 크고 작은 일들로 하루해는 짧기만 하다. 회의를 느끼게 하는 회의, 끝이 없는 상담과 수업 준비, 그리고 망아지같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뒷수습으로 별보며 퇴근을 하는 일과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 학기 초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던 녀석 얼굴이 오늘따라 시무룩하니 신경이 쓰인다.

축구를 하다 손목을 뺨 녀석은 병원 가자 조르고, 도서위원을 하겠다고 담임 추천서를 내미는 아이만 해도 오늘 일곱 명 짜. 친구랑 싸워서 수업을 빼먹은 녀석과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잘 지내나요? 부모님에게서는 전화가 걸려온다.

이따금씩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은 '조용한 시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공기 마시며 생활하니 얼마나 좋을까, 참 행복하겠다, 부럽다' 한다. '어떻게 하면 대안학교 교사가 될 수 있나요?' 를 연발한다.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네. 행복한 건 맞습니

다. 그러나 환상은 깨시고 부러운 마음은 작게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들과 햇살이 공존합니다. 아픔 없이 피는 꽃은 없고, 그냥 열리는 열매는 없으니까요.'

때로는 부족한 나의 한계라 생각하여 도피하고 싶은 욕구도 느끼고,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이 길의 방향이 안개처럼 아득해 지기도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가르치는 사람인가' 에 대한 의구심도 언제나 꼬리를 물고 뒤를 따른다.

하지만 그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지나고 있는 오늘이 내게 더없이 소중한 하루였다는 것. 웃어도 울어도 그 안에는 수 천 그루의 나무를 꿈꾸는 작은 씨앗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하고 바쁜 오늘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낀다. 힘든 오늘이 행복한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만, 오늘을 열심히 사랑할 것이다.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더 오래 살아보아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는 요즈음이다.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무수한 경험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단련시켜주길 바란다.

봄별이 좋다. 논두렁 사이로 봄이 오는 향긋한 소리가 들린다. 언제나 시작이며 언제나 끝인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고 있다.

어느 봄날, 오후 네 시의 평화.

# 간디에서의 첫 발걸음

강들 \_ 1학년

푸릇푸릇한 우리 1학년이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간디학교에 온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보고 싶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같은 방을 쓰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물론 처음부터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금방 친해졌지만 선배들과는 서먹서먹하고

쳐다보지도 못한 채 힐끔힐끔 결눈질로만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끼리 별명도 붙여주고 언니, 오빠들의 별명도 알게 되어 선배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결정적으로 친해진 계기는 '눈' 덕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학식을 했을 때 눈이 와서 정말 미친 듯이 눈싸움을 했거든요. 그때는 눈을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옷 속에 집어넣고 얼굴에 비비고 정말 어떤 오빠는 너무 심했습니다! 으으~ 잇을 수가 없어요(태근이 오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내년에 생각한다면 좋은 추억이 되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그리고 이 곳은 따뜻한 물이 아침에만 나온다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4명 정도가 샤워하면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아침체조는 7시인데 머리감고 샤워하려면 5시30분에는

일어나야 되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정말 귀찮아 죽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정말 먹고 싶어요. 족발, 삼겹살, 스테이크, 치킨, 피자 너무 많습니

다. 덕분에 우리는 밥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근데 언니들은 여기 와서 몇 킬로씩 쪼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탁구를 30분 이상씩 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찢겨요. 이 탁구도 간디학교에 와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dge'라는 동아리에도 들었습니다. 일반 중학교였다면 공부에 치여서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간디가 고맙고 간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간디를 생각할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디 인이 되었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간디, 사랑과 자발성을 추구하는 간디, 간디를 사랑합니다. 1학년 파이팅!



# 우리가 만들어요! 고운사분

안해지 \_ 일상다반사

이번 학기에 들어 새로운 동아리가 많이 개설되었다.

고운 비누라는 뜻을 가진 '고운 사분'도 그 중 하나이다. 이 동아리는 천연으로 비누와 립밤, 스킨, 로션 등을 만들어서 전시, 판매하는 동아리이다.

고운 사분에서 만드는 비누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다. 미백 효과가 있는 비누가 있는가 하면 여드름에 좋은 비누, 보습이 잘되는 비누, 피부에 탄력을 주는 비누도 있다.

그리고 고운 사분은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아리로 유명하다.

이번에는 설문지를 작성해오면 비누 샘플과 사탕을 주는 작은 이벤트를 열기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 많이 놀랐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며 아래에 고운 사분 회장님 3학년 한재원양의 인터뷰를 담아봤다.

## 고운사분 인터뷰

◎ 고운 사분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씻을 때마다도 화학 약품이 들어간 비누를 쓰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친환경적인 것들은 그다지 기능이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기능도 좋고 친환경적인 비누를 만들기로 생각한거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면 에센셜 오일, 첨가물 등을 넣는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꿀, 우유 등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누 틀에 붓고 굳어지면 조각을 내서 4주간 숙성시킵니다.(CP비누의 경우) 설명을 읽어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 사람의 손길과 정성을 거쳐야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만드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먼저 베이스 오일을 녹이고 가성소다를 녹입니다.

◎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비누를 소개해주세요.



다 좋지만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아마 여드름 비누가 아닐까요.

여드름 비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티트리, 라벤더, 버거못과 같은 아로마 에센셜오일과 핑크 클레이를 넣어서 심한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작은 트러블까지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답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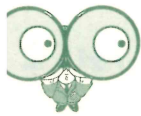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열심히 다양한 비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비누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 거예요.)

➔ 보너스! 고운사분에서 준비한 설문지 이벤트의 목적이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핸드메이드 비누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





# 이쁜이들의 일상다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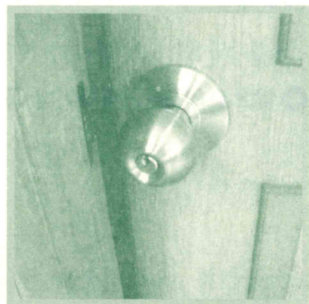
요즘 우리 여기숙사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 요 근래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들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 첫 번째 이야기 5호방 화장실 잠기다! 범인은 누구?!

여기숙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5호방 화장실. 가장 깨끗하기도 하고 다른 화장실에 비해 훨씬 수압이 좋은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만 5호방 화장실의 문이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던 5호방 화장실의 문이 열리지 않자 취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숙사에는 순식간에 갖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해 놓고 창피해서 잠그고 나온 게 아닐까, 아니면 어디가신다고 하셨던 선 옥쌤이 숨어 계신 게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5호방 화장실 청소당번이 청소하기 싫어서 문을 잠그고 나온 게 아닐까 하는 등의 갖가지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5호방 화장실의 문이 잠긴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행정실 쌤들께서 화장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잠겼던 문이 열린 순간, 갖가지 소문으로 떠들썩하던 우리 여기숙사는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죠. 화장실 변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듯이 물이 잘만 내려갔고, 선 옥쌤은 화장실 문이 열리기 전에 기숙사에 나타나셨고, 5호방 화장실의 청소당번이었던 ○○양은 자기도 애용하는 화장실인데 왜 일부러 그랬겠냐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기숙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5호방 화장실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 두 번째 이야기 '3월 14일' 몰래 들여다보기

우리 여기숙사는 1년에 한번씩 떠들썩해집니다. 그 날은 잠도 자지 않고 11시가 넘든, 새벽이 되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날은 바로 3월 14일, '화이트 데이'입니다. 화이트 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왜 떠들썩해지는지 감이 잡히시죠? 화이트 데이는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전혀 용기가 없던 우리학교의 남학생들도 이 날 만큼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데이가 되기 전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충주로 외출을 나갑니다. 아마 화이트 데이를 준비하

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 때 아무 이유 없이 외출을 나가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이 날 밤부터 여기숙사에는 누구누구가 사랑을 사왔대 하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 화이트 데이가 돌아오면, 그 날 오전과 오후까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묵학 시간이 끝나기 10분전부터 기숙사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소곤소곤 이야기 하던 것이 그 시간이 되면서 순식간에 시끄러워 진거죠. 묵학이 끝나고 이제 취침을 준비해야할 시간입니다. 우리학교 에서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날은 더 그렇겠죠. 몇 명의 여학생들은 불려나가고 그 때부터 여기숙사는 주체할 수 없이 떠들썩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화이트 데이가 그저 행복한 날만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판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서로가 좋아하던 마음을 화이트 데이를 기회로 확인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던 마음을 애기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갖가지 일들 때문에 여기숙사에서는 오늘이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취침시간을 미뤄주기까지도 합니다.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는지 도저히 조용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날 만큼은 여학생 모두가 친해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번 3월 14일 밤의 일들도 많이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들만의 비밀입니다.

## 세번째 이야기 7일 동안 반성의 108배

얼마 전 3학년 두 남학생 사이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을 하다가 화가 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족회의에서 '일주일간 108배' 라는 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학년 남학생들이 자기들도 벌을 받겠다고 해서 담임선생님인 필쌤과 회의해 3학년 남학생 모두가 일주일간 반성의 108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학년 남학생들과 필쌤은 일주일 동안 밤 10시에 모여서 108번씩 절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들도 벌을 함께 받는

모습에 3학년 여학생들과 여러 쌤들은 놀

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학교에

서 3년 살더니 정말 철이 들었네 라

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분명히 잘

못한 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반성하는 모습이 참 아름

다웠습니다.



# 환경호르몬을 고발한다

정현 \_ 일상다반사

가치를 꿈꾸는 과학수업을 하면서 영상물을 보았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보는 중간 중간에 눈살을 찌푸렸다.

먼저 오염된 땅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를 해부해보았다. 오염된 땅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는 정상적인 개구리의 고회환 크기가 다르고 불균형적이었다. 정상적인 개구리의 고회환이 'OO'라고 생각한다면 비정상적인 개구리의 고회환은 'Oo'였다. 나는 화학이나 해부상식이 거의



없는 편인데 그런 내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결과 80년도에 들어오면서 정자의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말은 인간의 고회환도 점점 퇴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불임의 위험성을 잘 나타내어주고 있다.

한강유역에서는 잉어의 성이 뒤바뀌고 심지어는 사람의 지방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일상생활의 물건들이 거의 다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무서운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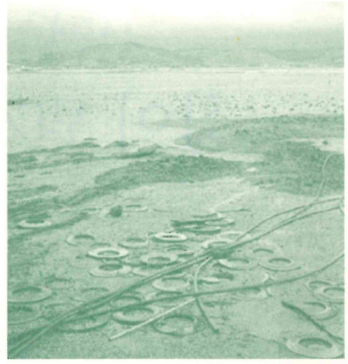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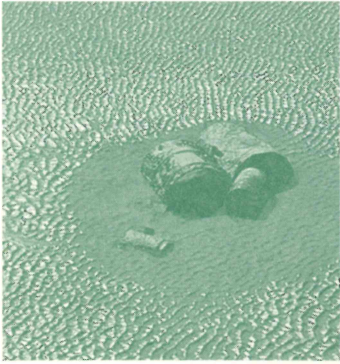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자주 사용하는 젓병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다. 결국 젓병에서조차도 뜨거운 물을 부으면 환경호르몬이 나오고 그 젓병을 많이 쓰면 쓸수록 환경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호르몬의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니다. 갓 태어난 태아의 탯줄을 검사해보았더니 무려 6가지의 환경호르몬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환경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환경호르몬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안타깝고 슬펐다. 인간들만의 편안함을 위해 이렇게 까지 자연이 파괴되고 나 또한 이러한 재앙을 만든 한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다.

우리학교처럼 환경삼푸를 쓰고, 과자나 인스턴트식품 같은 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소한 것부터 차례로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 세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물들의 경우에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루빨리 심각성을 느껴야 하며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생존이 달려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들 이었는가를 우리는 하루 빨리 알아야 한다.

결국에는 0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지구를 더럽히려고만 하는 걸까?

「계산해 보면,  
세상에 빨래가 더 깨끗해 질 때마다  
마을을 지나는 하천은 조금씩 더 더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더하면 결국 0이 되는 세상…….

- '계산해 보면' 시 중에서...

# 삶이 뭔가 막힌 듯이 답답하고...

## - 더블린 사람들

이용애 \_ 미술선생님

삶이 뭔가 막힌 듯이 답답하고 지리멸렬하게 느껴지면서 한 없이 우울할 때 나는 한없이 부조리한 삶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소설 읽기를 통해서 위안을 얻곤 한다. 나의 소설책 읽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엿보기이다. 그 엿보기는 한없이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나를 가끔 일으켜 세워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들도 나처럼 정말 많이 속으로 울고 있구나, 그들도 정말 나처럼 바보 같구나, 혹은 세상살이라는 버거운 과제를 나만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나를 추스르고 일상을 이어갈 힘을 얻는다.

대부분의 소설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 줄거리 전개에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어지다가 나중에는 문체의 맛이나 작가의 의도 혹은 작가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추측 속에서 그 책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소설의 줄거리에 따라 단숨에 읽고서 별다른 맛(?)을 느끼지 못한 소설을 나는 두 번 다시는 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책을 빌려 보지 않고 사서 본 것에 대해 약간은 씁쓸해 한다. 가끔은 운이 좋게도 아주 좋은 소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책들은 내가 늘 혹은 가

끔씩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하면서 사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다. 마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가끔씩 아껴 먹으면서 음미하듯이 좋은 책들은 예민한 내 사유의 허끝에 섬세하고 즐거운 자극을 준다.

이러한 책들 중에 하나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단편집을 꼽을 수 있다. 아일랜드 태생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는 그가 살았던 1900년대 초기아일랜드의 영국 식민지 상황을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단편집을 통해서 간결하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너저분한 더블린의 뒷골목과 시골벽적이고 후끈한 술집의 열기, 후줄근하고 추레한 갖가지 인간들의 군상을 제임스 조이스는 간결하고 담담한 필치로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세심하게 잘 연결된 상징들과 전체적인 짜임새가 능숙한 장인으로서의 제임스 조이스를 엿보게 한다. 이 소설은 제임스 조이스의 다른 모더니즘 소설에 비해서 난해함이나 언어의 변화무쌍함이 없어서 읽는 이에게 부담을 덜 주는, 그렇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으면서 독특한 해악과 묘미를 느끼게 하는 소설이다. 어둡고 암울한 더블린의 구석구석을 쫓는 전형적인 자연주의 소설처럼 볼 수 있다.

# 더블린 사람들

제임스 조이스 지음 / 김정환 · 성은애 옮김



이 작품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식민지 특유의 무력감과 낙후된 경제 상황, 아일랜드적인 전통양식의 소멸, 그리고 정치적 열망과 좌절, 기회주의의 팽배 등이 더블린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녹아나고 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매일 매일 사소한 걱정거리에 시달리며 술로 회를 푸는 무기력한 건달이기도 하고 옆집의 친구 누나를 남몰래 사모하며 담장 너머로 가슴을 달구는 어린 소년이기도 하다.

“구름 한점”의 주인공은 어쭙잡게 시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무원으로서 런던에서 돌아와 출세를 과시하는 친구 앞에서 맥없이 움츠러들고, “상대역 들”의 패링튼은 상사에게 대들고 일자리에서는 한없이 무능하면서 해질 무렵이 되자 일도 팽개치고 돈을 가불하여 술자리로 단숨에 달려간다. 눈개가 내리고 오렌지 빛 가로등이 넘실대는 밤거리를 술친구들과 이리 저리 배회하며 돈을 다 날리고 결국에는 화만 잔뜩 안고 억울해하다가 집에 와서는 죄 없는 아들만 때리며, “어떤 만남”의 소년들은 학교 수업을 빼먹고 모험을 떠나지만 결국은 실망만을 안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두 건달”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유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루 해를 보낸다.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이라는 무대와 식민

지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갖가지 인간들을 창조했지만 그 인간들은 21세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주변에서 자주 보았던 이웃이거나 친구였거나 나 자신이기도 하다. 언어로 창조된 뛰어난 예술 작품의 보편성이 결국은 시공을 초월하여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뚜렷한 이해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조이스는 15편의 단편을 통해서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로 냉철하면서도 아름답게 전달하고 있다. 좋은 소설에서 작가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면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조용하고 냉철하게 숨어있지만 독자는 그 냉철함 속에서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된다.

가을비는 자잘하게 내리고, 마음은 한없이 젖어질 때, 혹은 삶이 내 던지고 싶을 정도로 버거워질 때 여전히 나는 가끔은 혹은 자주 “더블린 사람들”을 읽는다.

## ■ 3.8 여성의 날 행사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역사사랑이 주최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짧은 영상과 설문조사, 낱말 맞추기 등의 순서가 있었고, 행사 마지막에는 남녀 모두에게 생리대를 나눠주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 ■ 3.17 동아리소개

동아리 신입부원을 맞이하기 위해 동아리 소개의 밤을 가졌습니다. 약 20개의 동아리가 열심히 자신의 동아리를 뽐냈는데요, 연극, 몸짓, 사물놀이, 탁구, 영화, 작품전시 등등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 3.22 간디학교 일일 미용실

2학년 운이네 부모님께서 직접 학교에 오셔서 일일 미용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처에 머리 자를 곳이 없어 걱정이던 많은 학생들과 쌤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끝에 모두 멋쟁이가 되었습니다.랄랄라랄라~

## 3.24 하자센터초청

문화의 밤 시간에 하자센터 청소년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며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 3.26 배구대회 관람

배구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다른 여러 친구들이 함께 배구 올스타전을 관람하기 위해 1박 2일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은 통일이네 집에서 마련 해주셨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 ■ 4.1 가정학습

1달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가정학습을 다녀왔습니다. 1

달 만에 부모님을 만나는 1학년들은 특히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다녀오니 모두가 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 ■ 4.2 방문의 날

2006학년도 새로운 간디인을 맞이 위한 1차 방문의 날이 4월 2일에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앞당겨진 입학전형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차 방문의 날은 4월 30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 ■ 4.5 검정고시

천방지축 3학년이 가정학습 중간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한 달 동안 3학년들을 위해서 여러 쌤들께서 출근을 일찍 하시고 퇴근을 늦게 하시며 검정고시 특강도 해주셨습니다. 21명 모두 골치 아픈 시험 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놀아볼까요?

## ■ 4.10 학교너머

간디 홈스쿨 네트워크 "학교 너머"가 개소식(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간디공공체 사무실에서 마을주민, 간디학교교사 및 대안교육관계자들이 모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 ■ 4.19 마라톤 대회

4·19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은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녀 짝을 지어 약 5km의 거리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리는 길 중간 중간에 통과해야할 재미있는 코스도 있었고, 상을 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4·19 혁명의 의미도 새겨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3월 25일까지 후원해 주신 명단입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도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주신 마음들은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여 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들 부모님-바닥공사를 해주셨습니다, 방석 100개
- 전수빈 부모님-쌍화탕
- 강한솔 부모님-비타500 2박스
- 이다빈 부모님-쌍화탕
- 권영숙-유차차 2박스
- 간디자유학교 선생님들- 오미자청
- 간디마을학교 선생님들- 굴
- 정현 부모님- 고등어 10박스
- 연제훈- 썬키스트
- 김다정 부모님- 커피 2박스, 가시오가피주 1박스
- 이산하 부모님- 느타리 1박스
- 강주원 부모님- 굴 1박스
- 이승우 부모님- 400만원을 기증해주셨습니다
- 선린주민일동- 5만원을 기증해주셨습니다
- 남경록 선생님- 벽시계
- 오은교 부모님- 쌀 20kg 10자루
- 장노은 부모님- 현미찹쌀 10kg
- 김다운 부모님- 떡 2말
- 최용현 부모님- 굴 2박스
- 이운 부모님- 사과 1박스
- 김유태- 씨앗
- 김태진 부모님- 배구네트 봉 1세트

## CMS후원회원

2005년 1월 1일 부터 3월 25일까지 납부해 주신 명단입니다.

CMS 후원해 주신 금전들은 대부분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로 쓰여 졌고,

일부이지만 대안교육연대 지원금과 홈스쿨 네트워크 준비비로 쓰여졌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는 곳에 더 많은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581명 18,371,000원

(주)한수섭우, 강경선, 강덕수, 강동우, 강명우, 강민택, 강병일, 강상진, 강석도, 강수돌, 강순자, 강승규, 강신현, 강영균, 강용중, 강윤주, 강은정, 강주원, 강지혜, 강창남, 강창석, 강환정, 고동주, 고수원, 고지철, 공민준, 곽용호, 구경란, 구자민, 국정훈, 권상대, 권수경, 권영미, 권영숙, 권영태, 권춘현, 권혜숙, 권혜정, 금상호, 김주연, 권영숙, 권영태, 권춘현, 권혜숙, 권혜정, 금상호, 김갑돈, 김갑유, 김경례, 김경민,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환, 김극준, 김기만, 김길화, 김난숙, 김남규, 김남균, 김남수, 김남식, 김대부, 김대현, 김대현, 김도현, 김동섭, 김동희, 김란경, 김명구, 김명근,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우, 김미정, 김민진, 김병기, 김병석, 김보현, 김봉주, 김상덕, 김생연,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협, 김성혜, 김성희, 김소진, 김수자, 김숙자, 김순옥, 김승옥, 김승환, 김시선, 김시환, 김영란, 김영복, 김영삼,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영희, 김예동, 김용, 김용경, 김용규, 김용규, 김용주, 김용철, 김용철, 김용필, 김용희, 김용희, 김운기, 김원경, 김유신, 김유태, 김윤이, 김윤정, 김윤주, 김윤찬,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형, 김인철, 김일지, 김재구, 김재우, 김재희, 김정규, 김정미, 김정은, 김정은, 김중우, 김중우, 김중의, 김지식, 김지연, 김지연, 김지용, 김진오, 김평호, 김학희, 김해일, 김현란, 김현식, 김현진, 김혜란, 김혜원, 김혜은, 김효룡, 김홍일, 김효진, 김희교, 김희균, 김희정, 남경호, 남궁원, 남승록, 남양숙, 남양우, 노건호, 노경수, 노상규, 노선영, 노은희, 노희석, 라기호, 라성호, 류병일, 류영숙, 류은희마석훈, 문성룡, 문신기, 문신호, 문영미, 문현주, 민경주, 민병식, 민영기, 박경미, 박경현, 박기홍, 박미경, 박미애, 박민생, 박복자, 박봉규, 박상만, 박상진, 박선희, 박성열, 박수정, 박시홍, 박영미, 박영희, 박우철, 박용기, 박윤태, 박인옥, 박재능, 박재성, 박정기, 박정아, 박정혜, 박종국, 박종숙, 박진호, 박창순, 박재연, 박철운, 박현주, 박현준, 박현향, 박형규, 박혜리, 박혜선, 박홍식, 방준배, 배정옥, 배진우, 배필름, 백명기, 백승훈, 백진영, 법조타운내과의원, 변기영, 변문기, 변영애, 변현정, 부상준, 빈종일, 서미화, 서석중, 서예경, 서인자, 서정식, 서진섭, 성경화, 성동제, 성안순, 성장현, 성정미,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재익, 손현식, 손혜숙, 송미숙, 송수중, 송준섭, 송하동, 신란주, 신선영, 신송임, 신영주, 신윤숙, 신현덕, 심계선, 심예인, 심형섭, 안소현, 안수환, 안승범, 안정환, 안주연, 안진희, 안진희, 안춘자, 안항석, 안희중, 양병만, 양병원, 양선희, 양성자, 양수연, 양정숙, 양혜동, 양후남, 엄도경, 엄정미, 여태전, 연혜경, 엄계선, 엄순식, 오강순, 오경숙, 오병갑, 오수민, 오전옥, 오지혜, 오태경, 오현옥, 우기백, 우종백, 원영준, 원정임, 원현구, 유방훈, 유수진, 유연열, 유영택, 유은미, 유인수, 유정훈, 유중선, 유한목, 유향옥, 육기엽, 윤강우, 윤도희, 윤민호, 윤숙경, 윤요성, 윤은주, 윤준영, 윤태일, 윤한식, 이갑조, 이강연, 이강훈, 이건영, 이경란, 이근, 이광숙, 이광일, 이귀라, 이규홍, 이기봉, 이기하, 이기하, 이기현, 이낙원, 이대영, 이도중, 이명희, 이명희, 이무섭, 이미경, 이미경, 이범구, 이병순, 이병운, 이보완, 이상욱, 이상현, 이상화, 이상환, 이상훈, 이서영, 이선애, 이선영, 이성록, 이성애, 이성용, 이성자, 이소안, 이승규호, 이수경, 이수진, 이순임, 이승연, 이승욱, 이승희, 이신혜, 이신희, 이양환, 이연상, 이영미, 이영주, 이영준, 이영호, 이영희, 이요훈, 이용복, 이윤희, 이원갑, 이유진, 이윤숙, 이윤승, 이윤희, 이은신, 이은영, 이은주, 이인숙, 이장호, 이재성, 이정미,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준용, 이진석, 이진숙, 이진화, 이춘우, 이한진,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혜림, 이호진, 이호창, 이홍구, 이희정, 인종훈, 임명희, 임병포, 임영빈, 임진희, 임현주, 임형택, 장경덕, 장규식, 장명숙, 장영운, 장영원, 장정에, 장진원, 장통금, 전국진, 전미영, 전복희, 전상혁, 전서연,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우현, 전종철, 전해영, 정난주, 정다운, 정도영, 정명숙, 정문자, 정병태, 정병희, 정봉길, 정상용, 정석현, 정선화, 정성숙, 정연희, 정영수, 정영아, 정영주, 정영천, 정영환, 정용국, 정원일, 정이영, 정이화, 정인숙, 정재숙, 정재윤, 정정실, 정종숙, 정종태, 정진수, 정태균, 정현숙, 정희도, 정희영, 조경숙, 조경희, 조동희, 조만진, 조명자, 조봉석, 조상희, 조성수, 조성숙, 조성욱, 조세진, 조윤호, 조주환, 조창아, 조철연, 조혜정, 조희정, 주상영, 지연철, 지재원, 진상정, 진성기, 진영숙, 진은주, 진정란, 진정에, 차영순, 차은경, 채신자, 천희진, 최경우, 최귀중, 최도연, 최동덕, 최문택, 최미라, 최미숙, 최미애, 최부은, 최상윤, 최상호, 최선아, 최성철, 최소정, 최수덕, 최영준, 최옥자, 최용최, 최원분, 최은경, 최은미, 최은순, 최인화, 최제민, 최재정, 최재호, 최재훈, 최정수, 최정숙, 최정옥, 최종선, 최종현, 최준석, 최진영, 최진옥, 최창수, 최해만, 최해정, 최현학, 최현희, 최화영, 최효숙, 하광명, 하두철, 허승렬, 하여아, 허주희, 하태광, 하태호, 한광덕, 한상철, 한용택, 한점숙, 한현, 함신아, 함제도, 허성립, 허영순, 현은영, 형인순, 홍경순, 홍병선, 홍수연, 홍윤숙, 홍주영, 홍희경, 홍희숙, 황국덕, 황돌남, 황승욱, 황영숙, 황영숙, 황용덕, 황지연, 황지연, 황호영